

#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해부한다3]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 (수도권 지역거점 플랫폼)

✎ 이현경 기자 | Ⓞ 승인 2021.06.14 06:00 | □ 호수 77 | ▢ 4면

## 중양대, 수도권 한강 이북 총괄

국토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5개 권역에 6곳의 센터를 선정했다. 본지는 이번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해부한다' 시리즈 순서로 지역거점 플랫폼의 역할과 향후 운영계획을 센터별로 소개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6개 거점 대표 전체사업 '홍보' 총력

"중앙대학교 플랫폼은 6개 거점의 전체 사업 홍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홍보'에 특히 방점을 찍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강 이북의 수도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센터를 총괄하는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는 "그린리모델링의 전국 저변 확대를 위해선 우선 사업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사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수요 자체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많지만, 수도권 지역은 사업 지원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와 우수대학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며 "수도권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사업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

중앙대 플랫폼 컨소시엄은 산·학·연 연계 6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대 등의 수도권 대학과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계획 그룹 청연 등의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박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지난 4월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제1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앞으로 6개의 거점을 대표해 사업 전체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YTN Science’ 방송 홍보를 기획하고 있으며, 인재 교육을 위해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과 건축사협회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내혈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주택에 에너지 절약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박진철 교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기계설비 분야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내혈관을 책임지고 있어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계설비가 냉·난방, 환기 등 건축물의 내혈관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직결된다”며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설시장에서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기계설비분야의 신규 시장과 일자리 창출의 창구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이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재인식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이현경 기자 [hk@kmeceews.co.kr](mailto:hk@kmeceews.co.kr)

